

1970-80년대 음반산업에 대한 인터뷰: 이상기 편

김형준*

1. 머리말

K-Culture 융합연구소에서는 2022년에 경기도 파주의 지구레코드사의 기록 복원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모여 구술사 채록을 시도했다. 이때 우리는 지구레코드만이 아니라 가요계의 다양한 음반 기획사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개받은 인물은 이상기 선생이다.

이상기 선생은 1942년에 출생하여, 1965년에 전우음악실 방송 담당 및 매니저, 73년에 애플 프로덕션 방송 담당자, 이후 대중잡지 『아리랑』의 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를 만나서 당시 전우음악실에 대한 이야기, 가수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 유니버설 레토드, 애플 프로덕션, 서라벌 레코드사, 대성 레코드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본 인터뷰는 2022년 9월 7일에 이상기 선생이 지정한 장소에 만나서 진행하였다. 이때 김형준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사, K-Culture의 원조격인 다양한 구술 기록은 한국대중음악사 복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의 대중음악/음반문화 관련 아카이브』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하여 게재한 것임을 밝힌다.

* 현재 강원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이전에 CBS 및 SBS 라디오PD 겸 진행자로 활동하였다. 현재 공연 기획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 공동으로 펴낸 『경기도의 대중음악/음반문화 관련 아카이브』(보고사, 2023) 등이 있다. dancible@naver.com

2. 이상기 선생과의 구술 녹취록

김형준: 안녕하세요. 먼저 전화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당시 음악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기: 그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지구, 신세계는 나중에 생겼지만 뭐든지 유니버설, 그렇죠. 유니버설. 유니버설, 오아시스 그전에 또 뭐가 있더라. 박춘석 형님이 계실 때는 춘석이 형님이 나중에 PD 메이커 제1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우음악실이.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그 거성 그 유재민이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계약서 다 입고 이렇게 철저하게 해놨대요.

그 시절에 박춘석 형님이예요. 작곡가이면서 처음에는 이제 지구 이런 데서 다 이미지싸 곡 써주어서 히트가 막 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단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잖아요. 이미지 싸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박춘석 형님 얘기가 들어가야 돼. 박춘석 그 형님의 주옥같은 작품도 많지만 그 시절에 이제 지구하고 대결을 한 것이 박춘석 제작사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기해 줄 만한 사람들 다 돌아가서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유재민 대표인데 우리 후배가 그 뭐 하여튼 거기 자료는 많아요. 자료는 많으니까 좋은 뜻으로 취재를 하면은 거기 이제 금석이 형님이 계시잖아요. 박춘석 씨의 형님. 근데 여기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노인회 가면 박금석 씨가 이제 박춘석 씨 형님. 형님인데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유재민이라는 친구가 거성 레코드 대표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음원을 다 개가 대표 옛날 것, 이제 남진이 뭐, 이미지 씨, 패티 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유재민 사장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집을 만나야 돼요.

김형준: 유재민 대표. 이분이 거성레코드의 대표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 당시에 그러면 지구나 뭐, 이쪽 박춘석 선생님에 대한 얘거나 이런 것도?

이상기: 다 내용을 아는 사람은 유재민 씨하고 친한 철영이라고 했어요. 김철영. 유재민 씨한테 SOS를 치면 철영이가 이제 거성을 까는 게 아니라 조명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또 한 번 만나야 돼. 왜냐하면 히트곡이 제일 많은 데가 거기잖아. 박춘석 작곡.

김형준: 박춘석 선생님은 그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다가 나온 건가요?

이상기: 전속작곡가가 아니니까. 그거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클래식하다 악단장이 되고 이래서 가요를 했는데 그런 곡이.

김형준: 어디 전속돼 있던 건 없었던 거군요?

이상기: 악단장 한 거는 알아? 근데 그거, 그 책을 좀 낸 게 있어요. 황문평 선생님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요즘 스타일로 뭔가를 이렇게 참 튀게 이렇게 젊은 친구가 엮어서 이렇게 하면은 저기 정태춘이 같이 사업단이 딱 붙어가지고 예를 들면 책을. 이게 이때 이제 70~80때 얘기야. 그런데 자기 얘기지만 거의 그때의 어떤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왔는데 얘기죠. 예를 들자면 오광수도 하나 썼잖아요.

김형준: 가요 역사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또 있으시잖아요?

이상기: 내가 있던 안타 프로덕션, 아니 애플 프로덕션이 이 나라에서 안 산다고 그러고 미국으로 갑니다. 이종환 씨 처남인지 나는 동생인지도 모르겠어요. 대천에 친척인데 이 김웅일이랑 그냥 미국 가 있어.

김형준: 그러니까 초창기 말고 조금 지나가서 인거죠?

이상기: 70~80년 때 얘기니까 나도 연도 기억이 전혀 없어. 기록해 놓은 게 없어서 상호한테 내가 거꾸로 물어보려고 그래. 내 전우음악실 있을 때가 내 몇 년이야? 그래서 지금 누가 될 해도 몇 년도 이렇게 질문하면 몇 년도 잘 기억이 안 나. 40년, 50년 이렇게 됐으니까.

김형준: 70년대. 어쨌든 70년대 이후인 거네요?

이상기: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중반, 중반 정도 유신 시절. 왜냐하면 김훈과 트리퍼스가 김훈이가가 몇 년도지? 이게 TV 방송 가이드는데 TBC 라디오. 지금 같으면 FD지. 근데 이제 모르고 TBC 팜프렛이야.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80년도 79년이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때 심사위원들 기라성 같은 분들 다 돌아가셨죠.

김형준: 최창권, 최희준, 조용호 PD 아닌가? 염기철 이분 모르겠네요.

이상기: 염기철 씨가 이제 이게 옛날에 가요대상 사무국이 라디오에서 했어요. 라디오 라디오에서 TV에서는 중계를 연출만 한 거구. 모든 걸 선별. 이렇게 선곡 이런 거는 TBC 라디오 사무국에서는 염기철 씨가 특채로 드신 분이 거기 유성화 씨하고.

김형준: 위원장이 박시춘 선생님이네요. 그럼?

이상기: 이런 게 이제 그런 책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회가 최희준이 가수왕. 68년이 배호 배우. 69년이 남진. 여기 연도가 나오네. 70년도에 최희준이 다시 봐도 희준형이 그때는 대단하고.

김형준: 대상이요 남자?

이상기: 남자 대상. 여자는 이미자. 이미자 김상희 최양숙. 최양숙이가 2회 때, 작곡상은 여기 박춘석.

김형준: 《빈의자》. 최종혁, 정민섭 이분은 모르겠네. 《가을비 우산 속》에 저분이 작곡한 거예요? 백태기 《가을비 우산 속 너무 좋은데》.

이상기: 김훈이가 76년, 77년 두 번 받은 거구나. 전우음악실에 내가 있을 때가 그 60년, 67~68년 이렇게 됐겠다. 내가 전우음악실에 있으면서 이제 방송 일을 시작한 거지, 가수 접고. 가수는 뭐 하려다가 전우 선생님 때문에 내가 현재까지 좋은 형으로 덕분에 행운을 찾은 거고 사실 꿈은 가수였었는데.

김형준: 그러면 그 시작하셨던 60년대 그때 시절은 그때 PD 메이커신 건가요 그러면?

이상기: 전우음악실이 일종의 그렇죠. 내가 볼 때 연도를 모르겠는데. 네 춘석형보다도 더 빨랐을 거야. 전우음악실이. 『아리랑』 잡지 부장하면서 그걸 냈거든. 아니 거기 근무했던 친구들 이렇게 까맣게 모르니 뭐. 나야 뭐 늙은이가 그래서 이걸 프로필을 유인촌 장관한테 상을 받을 때 프로필을 다 적어오했는데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렸을 때 몇 살 때 6.25하고 10대까진 기억이 딱 나지. 그러면서 이제 운동 야간 학교 다니면서 그냥 운동 누구 할까 지역 깡패한테 왜 맞고 복수한다고 운동 시작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한동안은 이제 박춘석 뭐 예를 들면 박시춘 이런 분들이 이제 작곡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자기가 내는 그 이야기 그 시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따로 하든지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작곡 전속 작곡가 뭐 이런 거는 엄청 돈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었을 걸. 아마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 나는 박춘석이 형이 지구에 있고도 전속이었는데 그걸 난 모르겠어. 우리 선배들이 아는데 흥택이 형이 아실 거라고 그거는. 정흥택 씨가 그때 얘기는 정흥택 씨한테 다시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오보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연도 이거는 맞아야돼. 그 때 얘기가 막 헛갈려서 거꾸로 가면은 난리 난다구.

김형준: 저 오아시스 70년대 하셨던 아까 김민배 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청계천에서 처음 할 때 안양 가기 전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약간 작곡가들이 오셔서 자기 방 있듯이 꽤 많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사람 들어오면 오디션도 보고 막 이런 건데, 그렇게 상주하는 작곡가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기: 그게 전속 개념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오아시스에서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작곡가가. 그렇죠. 지구 쪽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박춘석 씨는 지구였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오아시스도 남진이 곡을 썼을 때는 오아시스 같은데.

김형준: 초창기 계셨던 전우 음악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상기: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그땐 전우 음악실은 이제 전우 선생님이 준 이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히트를 이연실 있고 계속 줄줄이 내면서도 이연실 있고 대박 났었잖아. 《새색시 시집가네》, 《목로주점》 같은 대박이 났는데, 그때 네가 거기서 총각 때니까 스물 여덟아홉 뭐 이렇게 됐을까? 내가 33살 결혼한다 그랬으니까. 전우음악실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거기 근무했다가. 전우 선생님이 이거에 이제 막 24시간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황문평 선생님 거기 다 왔다 갔다 하셨거든. 하중이 선생님 나 그때 이제 친구가 정홍택 씨 다 PD들이 다 친구였잖아요. 전우 씨하고 그냥 나는 이제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그때 이제 TBC 이제 프로그램 섭외, 기독교 방송 오픈 때부터 했지.

김형준: 기독교 방송이요?

이상기: 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가 안 되고 뭐, 김정호 같은 애들은 뭐, 일찍 죽었지 만은 하.. 착했었고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게 이제 채은옥, 김정호. 김정호는 이제 병이 걸렸는데 나는 정호를 예를 들자면 병을 고치고 그때가 이제 몇 년도 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정호가 애플에서 마지막 낸 게 인생이라는 곡이 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대마초 다 풀러가지고 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조용필이가 《창밖의 여자》가 《동아일보》 주제가로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딱 들어보니까 정호가 라이브 한 번 딱 MB시키니까, 또 가수들이 마이크 쓰는 것도 다음에 마이크 쓰는 것도 싫어하고 폐병 있다고 그래서 예쁜 프로덕션 대표하고 상의한 게 정호도 또 매사기가 빠르니까, 근데 용필이가 정호 필도 많이 모방을 한 건 아니고, 정호 필을 많이 저기 했어요. 《돌아오지 않는 강》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용필이가 처음에 창법이 깨끗하면서 이제 리드미컬하게 했다가 아주 깊은 한 호소력으로 바뀐 거지. 근데 그때는 정호가 먼저 히트 많이 나왔을 때, 조용필은 조용필과 그림자. 그래서 파노라마 하면서 막 밤일하고 고생할 때지. 킹박 만나서 이제 조용필이 오늘날 《돌아와요 부산항》, 원래 《단발머리》로 가려고 했는데.

김형준: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킹박 제작인 거예요?

이상기: 그래서 오늘 《단발머리》하고 그거 하고 했는데, 진짜 빅히트 난 거는 주제가 난 거야. 《창밖의 여자》. 그 다음엔 뭐, 계속 조용필이 시대가 온 거고. 통키타는 통키타 장르 대로 이제 가면서 조용필은 이제 독보적인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가수다,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가수다, 그전에 그랬잖아. 옛날에는 이미지, 패티김, 남진, 나훈아, 그랬던 조용필 이게 이렇게.

김형준: 조용필 씨는 지구에서 계속 났잖아요? 찍은 거는 그래서 그 판권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슈가 막 되고?

이상기: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절에는 레코드사에서 다 양도를 받은 거야. 근데 가수나 작곡하나 그걸 따지고, 온라인 수입이 전부 다 이런 건 생각도 못했고. CD가 나와서는 가수가 불러서 방송에만 나오면 나는 작곡가가 된 거다 그런 순서를 기다리고 한 시절이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레코드 회사에 가서 밤낮 사장한테 비위 맞추고 고스톱 치고 그래도 누구 하나 이제 녹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옛날에 자주 못했거든. 동시 녹음이 없으니까 거의, 악단하고 같이 녹음한 시절이 꽤 있었어. 그래 가지고 옛날에 더울 때는 난 기억도 새로워. 송춘희 씨하고 나하고 녹음을 같이 했었는데. 난 노래 그때는 개판이었지만. 뭐지 송춘희 씨가 《처녀 뱃사공》. 그게 한복남 씨. 한복남 선생님 곡인데 한복남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야. 그때 20대 때 열여덟 살 땐가 콩쿨에서 1등해가지고 거기 이제 도래미 가서 도미도. 도래미가 아니라 도미도. 그랬거든 왕십리 그때는 이제 그분이 실향민이잖아 한복남 씨가. 《빈대떡 신사》. 박재란 씨의 《님》 뭐 히트곡이 꽤 많으신 분이야. 그래 그때 장충동에서 녹음을 하는데 장충 녹음실 생겨가지고 거기서 악단이 팬티 바람이 막 불고, 근데 다 잘했어. 처음에 공장에서 아이고 끝났다. 이제 마무리는 그걸 해서 잡음이 들어가니까 또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날 그 다음에 부르니까 그 노래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했는데 마지막 클로징 음악이 딱 후주가 끝난 다음에 이걸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전에 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 그 소리가 그때는 편집이 안 되는 진짜 그럼 음악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지고 자 다시 합시다 그랬는데, 이거 악단도 다시 해야 돼 그럼. 근데 시키니까 그 노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잡아서 다시 녹음한 게 감기 들어서인데 그게 빅히트가 난거야. 코맹맹이 소리가 낙동강 하고. 그게 송춘희 씨에, 송춘희 씨 맞지? 빅히트가 났잖아. 그것도 이제 한복남 선생님.

김형준: 오리지널이 감기 걸린 목소리였던 거예요?

이상기: 약간의 콧소리가 나는 소리인데, 그게 아주 그냥 개성 있게 아주 또렷또렷하게 들어갔지. 정말 그거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투에이스가 이제 여자 노래만 리메이크 딱 해가지고 한 것이 김명곤이 새로운 편곡 그러니까, 이제 리듬 살려서 하는 새로운 편곡으로 해서 빅히트가 났지. 그래 애플에서 갈 길을 본 거지.

김형준: 그때 그러면 애플 그 가수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상기: 어떻게 보면 다 했는데, 스케줄 애플 거는 거의 다 했지. 이종용이 《너》 할 때까지. 이종용이도 내가 했고 그건 지구에서 했는데 김웅일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넓어요.

애플 프로덕션 대표가 돈 뭐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되고.

김형준: 김용길 대표요?

이상기: 애플 프로도처 대표죠 이제. 이종환 씨하고 일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종환 씨의 막강한 FM.

김형준: 라디오의 힘.

이상기: 라디오의 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김형준: 그러면 여기 애플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은 음반 찍는 거는 지구에서도 하고 오아시스도 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이상기: 지구에서는 안 했고 유니버설에서 하셨어요. 거기서 대여를 해주는 테가 있었다고. 마장, 마장 스튜디오. 프레스도 거기서 했는데 이제 애플에서 할 때는 다 밀렸어. 왜냐하면 2집이 히트 나니까 우선이 거기서 작업을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그랬지.

김형준: 다른 사람들은 다 2순위고 무조건 애플 먼저?

이상기: 무조건 애플 걸 먼저 잡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애플에서 녹음 기사들도 협조라는 게. 계인을 올리면 하워링이나 한다고 그래 가지고 리듬 다이를 제대로 크게 못 잡았어요. 어 그런데 거기서 이훈 죽은 이청, 이강, 이훈. 그래서 녹음실에 레코드 녹음실의 대기들이야 녹음실에. 그 시절에 삼형제 그런데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이청, 이강은 조금 형들이고, 그 밑에 동생 셋째 동생이 이훈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음악을 발전을 시킨 리듬을 발전시킨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놓고 이제 쪽 드럼 뒤에서 있고 이제 그렇잖아. 하나까 드럼 소리가 이제 외국식 판을 들으면은 리듬이 살고 다 살릴 걸 살리면서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올리면 계인을 올리면 이게 또 튼다고 그래가지고 동전 올려놓고 이렇게 판도 들고 그랬어요. 10원짜리 그래도 싹 지나가고 그런 건 나도 방송할 때는 옆에 있었으니까 많이 봤는데 그리고 타임이 길면은 튼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타임이 길면. 그래 가지고 몇 곡 이외에는 못 싹고 테잎은 괜찮았지. 근데 LP는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4분 넘으면 뭐, 이제 문제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때 나온 건데. 그때 이후 이런 녹음 기사가 세 번째 형들한테 배웠지만, 우리가 애플만큼은 리듬을 살려보자 그래 가지고 뭐라 했냐면 드럼을 이렇게 칸으로 막아보자 벽을 지금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잖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리듬이 그냥 니들 마음대로 쳐.

김형준: 그거를 그러면 다른 데서 배우거나 외국에서 그렇게 한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곰곰히 생각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건가 보네요?

이상기: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그 시절에는 외국 가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런 힘든 일이었고, 그런 건데 이제 개가 용감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판을 튼든 말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개인이 확 다른 거야. 애플 딱 걸으면 벌써 삭 하고 그냥 벌써 어 왜 이 음이 다르지? 이렇게 그런 정도 느꼈어요.

김형준: 굉장히 좀 약간 센세이션 하겠네요?

이상기: 그래 가지고 안건마가 그냥 슬로우 편곡을 김정호께서 거의 안건마 씨가 이제 미국 간 안건마의 편곡 편곡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도 들어도 오리지널 들으면. 그래서 그때 애플이 뭐냐 뭐가 다르다 지구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지구 이런 데는 이제 트로트 갔으니까 슬로우 곡이 많고 그러잖아. 여기는 이제 통키타에다가 대학가 이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소문이 난 거지. 그래서 리듬이 많이 살았죠.

김형준: 여기는 애플은 다 유니버설 레코드랑 하면서 거기 스튜디오를 쓰니까 지구나 오아시스랑은 좀 차별화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거 이 유니버설 레코드는 어디 있었어요?

이상기: 내가 볼 때 그 마장동 그 쪽에 근데 나도 유니버설 저기만 알지 사무실만 그냥 우리는 애플 작업만 하는 거 알지.

김형준: 레코드사가 어디에 있었는데요?

이상기: 마장동에 있었잖아요.

김형준: 공장이요?

이상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쪽에서 히트를 많이 내니까 이제 모든 이제 레코드사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지. 거기다가 조용필이도 급적급적 판 사람이 자꾸 데려가려고 이쪽에서 쫓시고 최봉호 씨도 잠깐 데려갔었잖아. 조용필이 일본에 왔다갔다 실패하고 내가 김수철이 데리고 있을 때 김수철이 가수왕 할 때 그때 80 몇 년도냐?

김형준: 84년도요. 《못다핀 꽃 한송이》 나오고 그럴 때?

이상기: 그때 내가 이제 수철이 따로 이제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애플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장덕이도 하고 바빴지. 거의 신세계 레코드. 나는 그때 여태까지 계약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수를 잡아 놓은 적이 없어. 대성. 서라벌을 거기에 뭐 누구야 돌아가신 이흥주 사장. 이흥주 사장님이 우리 체육관 내가 관장할 때 후원회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PD 통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김현숙 그 여자 PD 이대 동창이 이흥주 씨 딸하고 동창이야. 송도순 성우하고 이게 동창. 그래서 PD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면 꼭 PD들이 연락 와서 가수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PD가 꼭 소개를 해서 가수한거지. 김수철이예요. 장덕

이도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솔로로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냈는데, 명곤이도 부탁을 했지만 PD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다 그냥 가수왕 되고 10대 봤을 때고. 그게 딱 나왔는데 이상욱 국악으로 하던 친구인데 AD였거든. AD들이 힘이 있었거든 젊은 애들 PD들은 일이 많으니까. 야 너 내가 연락해 봐. 그러니까 지금 작가한테 연락하듯이. AD들이 다 이제 컨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AD들하고 내가 친했고 또 PD들은 나보다 어린 사람 다 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방송국 직원하고 똑같은데 매일 거기서 살고 그렇죠 TBC하다가 이제 통합되는 바람에 KBS, MBC는 종환이 형하고 내가 하는 바람에. 애플 프로덕션은 내가 살린 사람인데 나한테 그냥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

김형준: 그래요? 이종환 씨와 일가라면서요? 김용일 대표가 근데 거기서?

이상기: 그러니까 혼자 미국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 나는 계속 덮었는데 혼자 오해하고 막 이쪽으로 한국으로 LA에 있었거든요. 그때 PD 사건 딱 터졌을 때. 그랬더니 기사를 이제 《중앙일보》에서 잘 못낸 놈이 있어. 아주 친한 후배였는데 시기가 내가 이제 흥허물 없이 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서 그런 일이 다 있더라 그랬더니 그걸 그냥 특종 같이 쓴 거야. 이종환 씨를 내가 씹은 거 같이. 이렇게 종환이 형 아버지가 전화 오셨더라고.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종환 씨를 잡으려고 검찰에서 작전을 펴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방송할 때 이제 큰 사고를 쳐가지고. 그때 근데 그것도 확실한 증거 이런 건 없는 거지.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 한동안 있다 왔는데 그때 PD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내가 검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형님한테 내가 책갈피에 20만 원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돌려준 사람 피터 야마구치가 그때 그것도 무슨 돈. 피터 야마구치가 많이 했지. 여기 같이 여기 얻어놓고.

김형준: 누구예요? 그분은?

이상기: 한국에 데뷔한 MBC에서는 피터 현이라고 그랬고, KBS는 특과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피터 야마구치 방송을 이름으로 냈어요. 《아름다운 나라》 그래 가지고 그 유명한 곡이 아주 그건 김희갑 씨가 제작을 한 거야. 그걸 안 하려다가 그냥 야 네가 해줘야 돼 해가지고 그제 문제가 방송 많이 나왔다고 내가 끌려 들어간 사람이야. 그때 이제 종환이 형이 방송 이제 밀어준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하고 거기 이제 사업가 이면서도 이제 노래를 한 건데 어머니가 한국인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야. 근데 유엔 본부에 스시 같은 거 집어넣고. 그리고 뭐야? 장례식 큰 차 뭐냐? 미국 무슨

진?

김형준: 리무진. 리무진.

이상기: 리무진 거 한 100대 놓고 사업하고 근데 김희갑 씨가 이제 뉴욕인가 갔다가 하남궁 이하고 이렇게 갔다가 만난 거야. 근데 개가 기타를 잘 치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스페니시 기타를 치더라고 피터가 그 양인자 씨하고 거기 여행 갔다가 만나서 선생님 저 곡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녹음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야 6개월 하면서 한참 방송 했지 그게 내가 이제 매니저 그래 지금 여의도에 방을 하나 얻어 놓고 이걸 지가 왔다 갔다 하고 쓰고 비어 있는 거지. 이게 종환이 형이 거기 방을 쓰는 거야. 피터랑 친해서 피터하고 친해 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다고. 근데 엉뚱하게 나한테 오해를 해가지고.

김형준: 이제 지구의 우리 시절에는 그냥 어쨌든간 유니버설 그런 거 있지만 어찌되건 지구하고 오아시스의 대부분 서로 들은 가깝게 지내신 분들 아니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상기: 내용을 만나면 잘해 봅시다 우리끼리 이리 가지. 근데 신세계는 나한테는 그 윤상원이란 사람이 조용필이 세워놓고 가수 한 번 받는 게 원이 그러면 내가 원이 없습니다. 그해 그게 조용필이 세워놓고 남자 가수상하고 PD가 뽑아주는 상을 그 해는 무조건 수철이가 왕이야. 그때 조용필이는 일본에 될 좀 그쪽에 될 기대하고 유재학이가 거기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가 김종민 씨가 동서 비슷하게 됐었잖아요. 그때 이태현 씨가 끼고 우리 후배 정광호가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일본에 왔다 갔다 그래서 그해에는 히트곡이 별로 없었어요. 국내에서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했냐 하면 《못다 핀 꽃 한송이》가 매일 오바랩시키고, 그 다음에 테잎 다음에 나올 녹음한 거를 테잎으로 내가 다 뭘 틀었냐면 《나도야 간다》, 《젊은 그대》 그냥 오바랩 시킨 거야. 누가 뭐래도 그냥. 그 용필이 그게 용필이는 자기가 원래 정책적으로 뺀이 많잖아. 그걸 믿고 진필홍 씨가 연출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연출자 최고의 연출자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용필아 일본에서 무조건 들어왔는데 금년에 저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용필이도 감을 잡은 거야 왜냐하면 수철이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용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야 내가 연출인데 니가 가수왕이야 나 무조건 들어 이제 들어온 거야. 근데 두 개를 그냥 그때는 정말 내가 뛰기도 뛰었지 정광호하고, 이제 송영식이가 내 뒤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방 방송 PD들이 다 투표를 해줘야 하는 거야. PD가 뽑아주는 그 상이 진짜 그 명분이 있는 상이에요. 가수왕도 가수왕이지만 그게 남자 가수상 PD가 뽑아주는 상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로비에서 파티를 하잖아 KBS 별관에서 밑에 짝 이렇게

부페식으로 파티가 끝나면 조용필이가 수철이 옆에 가서 해줬었지. 그때 딱 발표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이 저기 수철일 부르더니, 야 수철아 너 상기형 돌아가시면 니가 비석 세워드려라 너 잊으면 안 된다. 그래 그래 가지고 그날 누가 엄청 그냥 밤에 엄청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용필이가 욕심이었지 처음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일본에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 진필홍 씨 연출자 얘기 듣고 왔다가 그런데 상이라는 게 혼자만 받는 건 아니잖아. 수철이는 어떤 식이냐 하면 아이고 형님 상에 연연하지 맙시다 이런 스타일인데. 상을 나중에 원하더라고. 거기 딱 하고 31일이 MBC야. 30날이 KBS. 31일도 거의 수철이로 결정이 났었어요. 왜 두 곡 연습을 하면 그 사람이 가수왕인 거야. 앵콜송 KBS 아니 MBC는 기자들이 벌써 와 두 곡 연습이 수철이가 여기도 가수왕입니다. 근데 연습 끝나고 한참 있다가 악보를 건더라고 앵콜송 악단에서 수철이꺼 이거 하나 빼요. 그래 가지고 야 여기는 바뀌었어.

김형준: 혹시 오아시스나 지구나 이런 데들이 서울에 있다가 왜 다 이렇게 공장을 안양이나 이렇게 파주나 이런 데로 정기적으로 빠졌을까요?

이상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조금 더 발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퍼지니까 그렇게 크게 녹음실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제적인 이유겠죠. 그리고 이제 편하고, 편하다 그냥 우리가 거기서 다 대고 바글바글하게 좀 키워 가지고 그렇지. 그때 청계천 가면 다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작업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획하고 이런 것이 이제 너희들 기사 톱 쓰려면 몰래 쓰듯이.

김형준: 귀한 시간 내셔서 여러 에피소드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기: 네.

